

유럽연합 회원국의 개별 민족주의와 EU의 공동체정책 충돌*



황 기 식

제1저자 동아대학교
(kshwang@dau.ac.kr)



최 인 영

교신저자 부산외국어대학교
20138214@bufs.ac.kr

국문요약

2017년,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카탈루냐 사태를 계기로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분출해 유럽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상황은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가 결정되어짐에 따라 급격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벨기에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은 남부 발론 지역과의 분리 독립을 추진 중이고, 스페인에서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탈리아도 북부지방을 대표하는 북부동맹이 남부지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분리 독립, 지역들은 모두 언어와 역사, 문화가 다르고 부유하게 사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자치와 분리를 주장해왔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 본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경제민족주의 성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유럽연합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주제어 : 유럽연합, 민족주의, 브렉시트, 카탈루냐, 분리 독립

I. 서론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던 ‘민족’이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반이민 정서는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세금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등 경제적인 문제로 여겨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반이민 정서는 경제문제보다는 민족주의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실제로 유럽연합은 2017년 10월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카탈루냐 사태를 계기로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분출해 유럽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상황을 가장 우려해 오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 갈등과 관련해 민족주의가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는 ‘독약’이라고 비판하면서 유럽을 약화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형태의 분리주의에도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다.

이렇듯이, 세계화 시대라고 여겨졌던 현재의 21세기에 민족주의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이념 전쟁이 끝나자 민족주의는 ‘20세기의 낡은 유물’이라 평가받으며,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달리 경제위기와 함께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민족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1990년대가 세계화의 시대였다면, 2000년대는 민족주의의 시대”라는 주장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는 2016년 06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가 결정되어짐에 따라 급격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영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럽 곳곳에서의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60여년 역사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과 이러한 분리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유럽연합은 어떠한 자세와 정책들로 대응해 오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유럽연합의 공동체 유지 정책과 회원국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 사이에 발생되어지는 갈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II. 관련이론 및 문헌 분석

본 장에서는 민족주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유럽의 민족주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장기간에 걸쳐 공동생활을 함으로써 언어, 풍습,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등을 공유하면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인간 집단을 말한다. 민족주의는 민족을 단위로 독립 국가를 건설하고 유지하려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 반드시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법칙은 없다.¹⁾ 하나의 민족이 두세 개 국가를 이룰 수도 있고, 여러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Calduch, R. 1991)

분리 독립 운동은 한 국가에 여러 민족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기서 민족은 엄밀히 구분하면 인종을 의미한다(김정현 2013). 인종은 혈연적, 체질적 특징을 기초로 인간을 구분하는 개념인데, 21세기의 분리 독립 운동은 정확하게 보자면 같은 인종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들려는 ‘인종민족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다.(Ernest Gellner 2001)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국가와 민족의 벽을 허무는 세계화가 21세기의 보편적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종민족주의가 대두하고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억압받고 외부세계로부터 고립됐던 소수 인종에게 민족 자각과 정체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다민족 국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종 충돌과 갈등, 이에 따른 내전 등은 최근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의 모습이다.

최근, 유럽에서는 각 민족이나 인종들이 그동안 다른 지역들보다는 서로 통합된 형태로 잘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종민족주의가 대두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김형균 · 박경태 2006). 특히, 개별국가의 경우 지역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각 지역별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종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해묵은 역사적 감정까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유럽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재정위기와 경제적 어려움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데, 구제금융을 받고 있는 남유럽과 구제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북유럽 등 다른 유럽 국가들 간의 갈등과 대립이 증폭되기도 하였다.

1) 출처: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D&nNewsNumb=201405100023>
(검색일: 2017. 12. 21.).

이렇듯, 민족주의가 다시 주목 받으면서 민족주의의 발원지인 유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은 유럽은 민족주의를 넘어 ‘하나의 유럽’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고, 1992년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표방된 ‘하나의 유럽’이라는 유럽연합의 전망 속에서 민족주의는 유럽에서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였다.

유럽연합 출범을 계기로 1999년에는 유로화가 도입되었고, 2002년 01월부터는 서유럽 12개국에서 기존화폐를 폐지하고 유로화로 대체하였다. 회원국 확대도 순조롭게 진행되어 2004년 05월에는 회원국이 15개국에서 25개국이 됨으로써, 유럽연합은 GDP(국내총생산) 면에서도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러한 유럽연합의 긍정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유럽지역 비정부기구(NGO) 네트워크인 ‘인종주의에 반대하는 유럽네트워크(ENAR)’의 ‘2005년 유럽의 인종차별주의’ 보고서에 따르면, 점점 더 극단적인 형태의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증이 유럽 전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었다(진인혜 2010). 영국 신문 가디언에 따르면, 2004년 07월 발생한 런던 지하철 테러가 외국인 혐오증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어 런던 지하철 테러 이후, 1년간 영국 전역에서 백인이 이슬람교도를 상대로 저지른 인종범죄는 5만7902건으로 집계되었고,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공포증이 급증하고 있으며, 프랑스가 제도적 인종차별주의의 중심에 서 있다고 비판하기도 하였다.²⁾

유럽연합은 유럽국가 간의 통합을 가치로 내걸고 출범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는 민족주의 감정이 경제에 투영돼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이다.³⁾ 유럽 각국의 경제성장률이 낮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족주의 성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유럽연합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Hobsbawm 1998).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미국 코넬대학교 베네딕트 앤더슨교수는 19세기와 20세기에 민족주의가 정복과 팽창의 형태로 나타났다면, 21세기의 민족주의는 분열과 해체, 응축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21세기에도 민족주의가 여전히 번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영국의 역사학자 에릭 홉스봄은 경제적 관점에서의 세계화는 진행되고 있지만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면 민족국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Thumfart 2007).

이렇듯, 민족주의의 발원지인 유럽에서 민족주의는 21세기에도 존속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곳곳에서 분리 독립운동이 거세게 불고 있다.

유럽연합이라는 초민족적 공동체의 출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동체는 여전히 민족

2) 출처: http://m.khan.co.kr/view.html?med_id=khan&artid=200607261811461&code=970205 (검색일: 2017. 12. 10.).

3) 출처: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6/08/18/2006081877015.html (검색일: 2018. 01. 20.).

국가에 바탕을 두고 있거나 민족 국가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다(조희원 2014). 다른 한편에서 세계화의 역동성이 야기하는 삶의 불안정성은 민족주의와 인종주의를 비롯하여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각종의 보수적이고 심지어 퇴행적인 공동체주의를 도피처로 보이게 한다(이상봉 2011). 이처럼 세계화의 역설로 출현한 민족주의는 테러리스트나 게릴라를 연상시키는 후진적이고 야만적인 이데올로기로 간주되기 쉽다.

Ⅲ. 유럽연합 회원국의 분리 독립 움직임

본 장에서는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세계는 200개가 넘는 독립 국가들로 나뉘었다. 일부 학자들은 앞으로 수백 년이 지나면 이러한 독립국가는 500개가 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하였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거대 국가보다는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중심으로 하는 자율적이고 작은 규모의 정치 공동체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구소련에서 분리 독립한 독립국가연합 CIS 국가들 이외에도 유럽에서는 이러한 분리주의 경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가는 듯하다.

벨기에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은 남부 발롱 지역과의 분리 독립을 추진 중이고, 스페인에서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탈리아도 북부지방을 대표하는 북부동맹이 남부지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분리 독립, 지역들은 모두 언어와 역사, 문화가 다르고 부유하게 사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자치와 분리를 주장해왔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분리 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영국의 스코틀랜드는 유럽에서 분리 독립 움직임을 가장 대표하는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영국은 흔히들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라고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네 개 지역의 다른 민족 연방체이다.

특히, 스코틀랜드는 원주민인 켈트족이 건설한 왕국이었고, 잉글랜드는 원주민인 켈트족을 내쫓고 이주해 온 앵글로-색슨족이 건설한 왕국이기 때문에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간의 관계는 예전부터 좋지 않았다. 이로 인해,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는 수백 년간 서로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는 영국 전체 국토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520만 명으로 영국 전체 인구 6000만 명 중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외교와 국방, 재정을 제외한 사법, 보건, 교육 등에서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고, 자치의회도 따로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해유전과 조선 산업 등 영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정작 스코틀랜드 주민들은 복지혜택 등에서는 소외되어 있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며 분리 독립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다.

실제로 스코틀랜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4만3000달러로 영국 전체 1인당 GDP 보다 1만 달러 정도 더 많기 때문에 세금은 많이 내지만 복지 혜택에서는 잉글랜드보다 못하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스코틀랜드 의회는 2017년 03월, 2018년 또는 2019년에 제2차 독립 국민투표를 치르도록 영국 정부에 허가를 공식 요청하는 안건을 찬성 69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시켰다.⁴⁾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이끄는 스코틀랜드독립당(SNP)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찬성표는 무난히 확보할 수 있었으며, 스코틀랜드 녹색당도 안건을 지지한 결과였다.

이에 대해 스터전 수반은 의회 연설에서 스코틀랜드 주민은 ‘하드 브렉시트’와 우리 스스로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독립국가’가 되는 방안 중 선택할 권리를 지녀야 한다며, 스코틀랜드의 미래는 스코틀랜드의 손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독립 재투표 안건을 공식 발의했지만,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영국에서 분리 독립할 경우 경제 규모가 축소되기 때문에 생활이 나빠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1〉 서유럽 분리 독립 희망 지역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183778> (검색일: 2018. 01. 21.).

4) 출처: <http://news1.kr/articles/?2950361> (검색일: 2018. 01. 20.).

또 다른 대표적인 유럽의 분리 독립 움직임으로는 스페인의 카탈루냐가 있다(권가람 2015). 스페인은 문화와 언어가 각기 다른 여러 왕국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뭉쳐진 국가인데, 역사적으로 카탈루냐인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했음을 자부하고 있다.

최근 스페인 헌법재판소가 카탈루냐 자치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선언한 것은 자치 지방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위배되므로 원천 무효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카탈루냐의 출발은 스페인이 이슬람 세력의 침략을 받았을 때, 8세기 서유럽을 통일한 프랑크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크 왕국의 샤를마뉴가 이슬람으로부터 이 지역을 탈환하고 백작으로 하여금 통치하도록 했고, '카탈루냐'의 명칭은 8세기 사라센 제국으로부터 이 지역 탈환에 공을 세운 '오토게르 카탈로(Otger Cataló)'의 이름에서 유래한다는 설이 있다.⁵⁾

이후 카탈루냐는 이베리아 반도의 대부분을 지배했던 카스티야 왕국과 아라곤 왕국으로부터 어느 정도 수준의 자치성을 인정받았으나 1714년 스페인 왕위 계승전쟁에서 패하며 스페인에 강제 편입됐다.⁶⁾

하지만 현재의 카탈루냐는 스페인 전체 인구 4500만 명 중 16%인 720만명으로 스페인 17개 주 가운데 가장 발전한 지역으로 전체 GDP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에 과도한 세금을 매기고 있는데, 이 때문에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걷어 가는 과도한 세금으로 인해 재정상태가 갈수록 악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카탈루냐는 매년 GDP의 10%에 해당하는 170억 유로를 중앙정부에 납부해 가난한 다른 주들을 도와주고 있는 반면 스페인 정부가 카탈루냐에 주는 혜택은 거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불만이 갈수록 고조되어 왔다.

카탈루냐 문제에 대해 가장 활발한 연구를 진행해온 학자 가운데 한 명인 기베르노 교수는 최근 상황을 촉발한 요인으로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카탈루냐의 더 큰 자치 요구에 대해 중앙정부가 보인 부정적 태도이며, 둘째는 카탈루냐 주정부가 2003년부터 추진해온 새 자치법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 수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10년 그 중 핵심적인 조항들이 스페인 헌법재판소에 의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아 보류된 점이 카탈루냐인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셋째는 스페인 국가의 재정정책에 대한 카탈루냐인들의 불만인데, 현재 카탈루냐가 중앙 행정부에 기여하는 비율(약

5) 출처: http://newsteacher.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9/22/2016092200076.html (검색일: 2018. 01. 10.).

6) 출처: <https://goo.gl/x2t9T3> (검색일: 2018. 01. 10.).

20%)과 카탈루냐가 국가로부터 돌려받는 비율(14%) 간에 차이가 크고, 그로 인해 카탈루냐의 경제위기가 심화된 것에 대한 카탈루냐인들의 불만이 분리 독립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⁷⁾

스페인 카탈루냐뿐만 아니라, 북부와 프랑스 남서부 피레네산맥. 그리고 대서양이 만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바스크 지방 또한 유럽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독립 운동을 해 온 민족으로 알려져 있다. 바스크어를 사용하는 고유의 바스크 민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지역은 스페인 국경과 프랑스 국경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18세기와 19세기까지 특별한 형태의 자치정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난 1789년 이후 프랑스가 북부 바스크의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스페인 또한 1876년부터 남부 바스크의 자치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갈등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이 후, 스페인 정부가 바스크족에게 의회와 경찰을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부여하는 등 상당한 유화정책을 실시해 온 결과, 바스크족 주민들 중 현재 30% 정도만 독립을 지지하고 있지만, 카탈루냐에서 실시되는 주민투표에서 분리 독립 안이 통과된다면 바스크족도 분리 독립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벨기에의 경우, 네덜란드어를 쓰는 북부 플랑드르와 프랑스어권인 남부의 왈롱, 프랑스어와 네덜란드어를 함께 쓰는 특별 지역인 수도 브뤼셀, 독일어권인 남동부 지역으로 크게 구분되어지는데, 과거부터 지역별 분리 독립 움직임 때문에 골치를 앓아 왔다.

벨기에 전체 인구 1100만 명 가운데 농업과 상업 중심지로 플랑드르 지역의 플랑드르계는 58%, 왈롱 지역의 왈롱계는 31%이다. 인종과 언어는 물론 문화적으로 이질적인 두 지역은 항상 대립해 왔는데, 2010년 06월 총선 이후, 두 지역의 갈등 때문에 2011년 12월까지 540일간 정부를 구성하지 못해 '세계 최장 무정부 상태'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었다.

이러한 인종적 배경과 더불어 플랑드르 지역이 분리 독립을 요구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과도한 세금 때문인데, 벨기에 정부가 플랑드르 지역에서 거둔 세금 중 60억 유로(8조6000억 원)를 남부 왈롱 지역에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⁸⁾

아이러니하게도 브뤼셀에 유럽 통합의 상징인 유럽연합의 본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에서 또한 분리 독립 움직임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이 밖에도 프랑스의 지중해 섬 코르시카도 프랑스에 영토가 복속된 뒤부터 독립을 주장해 온 세력들이 있고, 과거 오스트리아의 일부였던 남티롤 지역은 주민 75%가 독일어를

7) 출처: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europe/818535.html> (검색일: 2018. 01. 10.).

8)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11/2016111102088.html (검색일: 2018. 01. 10.).

쓰고 있고, 이탈리아와 다른 게르만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남 티롤지방도 분리 독립 정서가 조금씩 고조되고 있는 지역이며, 르네상스 시대에 번성했던 베네토 지방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의 70% 이상이 독립에 찬성하고 있다.⁹⁾ 베네치아 역시, 분리 독립을 원하는 이유는 지역 간 경제력 차이 때문이다. 공업과 패션산업, 섬유업 등이 발달한 베네치아 등 북부는 1인당 GDP가 4만3000달러를 상회해 유럽 내에서도 가장 부유한 지역으로 꼽히는 반면 농업 중심의 남부는 1인당 GDP가 2만3600달러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베네치아는 연간 200억 유로(약 30조원)가 넘는 세금을 내고 있으며, 이탈리아 정부의 세금 수입은 대부분 북부 지방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IV. EU의 단일 공동체 유지정책

본 장에서는 앞서 보았던 유럽연합의 민족주의와 이러한 민족주의를 배경으로 하여 점점 가속화 되어지는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정책과 대응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던 유럽 각국에서 분리주의가 떠오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유럽 통합의 결과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유럽 통합이라는 힘이 작용하는 반면 반대편에서는 민족과 지역별로 파편화시키는 힘이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최근 분리 독립 주민투표 이후, 중앙정부와 충돌하고 있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2006년 선포한 자치법령은 행정적 자치단위를 넘어 독자적인 국가(Nation)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2010년 나라의 통합성을 저해한다며 위헌으로 판결했으며, 이번에도 독립국 선포는 무효라고 했다.

유럽 국가들이 유럽연합이라는 거대한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분리를 희망하는 지역은 기존 주권국가의 경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다. 과거에는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큰 주권국가 아래에서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었지만, 이제는 유럽연합이라는 더 큰 우산이 생겼기 때문에 주권국가를 벗어나고자 한다는 분석이다(이재승 2015). 앞서 살펴본 분리 독립의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의 특징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족적 배경과 더불어 특히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한 지역일수록 분리독립의 유혹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출처: <https://goo.gl/Ghhs5c> (검색일: 2018. 01. 10.).

하지만 유럽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해서 유럽연합은 원칙을 내세워 충돌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과거에 경제적, 군사적 이익을 위해 큰 주권국가 아래에서 보호받을 필요가 있었던 것들이 유럽연합이라는 더 큰 우산으로 인하여 주권국가를 벗어나고자 하는 발판이 되었지만, 결론적으로 이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한다는 것은 회원국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이자 유럽연합으로부터의 탈퇴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유임수 2006). 그렇다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분리독립한 이후, 유럽연합에 잔류하고자 한다면 새로이 유럽연합으로의 가입 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지만, 사실상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먼저, 유럽집행이사회는 ‘로마 조약(유럽 경제공동체(EEC)를 설립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약)의 권한은 조약에 서명한 회원 국가만 지닌다.’라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분리 독립하게 되어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박동준 2010). 또한, 이러한 기존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분리된 새로운 독립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가입 절차에서 유럽연합의 모든 회원 국가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국내의 분리주의 움직임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회원국들은 새로이 분리 독립한 신생국가들에 대해서 유럽연합 회원국으로써 새로이 가입하는 것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윤덕희 2008).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유럽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분리 독립하게 되는 신생 국가가 생겨난다면, 유럽연합은 물론 UN에도 재가입하는 절차를 거쳐, 국제사회에서 신생국 지위를 승인받아야 하며, 국제조약을 개별적으로 다시 체결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모든 조약기구나 국제기구에도 다시 가입해야하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에서 ‘외톨이 국가’로 국정운영에 큰 불편함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보았던 분리 독립을 희망하는 지역의 경제적 이점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또한 불확실성에 놓이게 되어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미치게 될 영향과 더 나아가 유럽연합의 측면에서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어지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에 있는 그 어떤 민족과 국가 또한 독립 선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헌법과 자치현장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의 정립을 통해 ‘인권 존중’이라는 공동 가치를 바탕으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해 왔다(변지영 2016). 기본권 헌장은 유럽연합에서 보호해야 할 기본권을 단일한 문서로 종합하였고, 2009년 리스본 조약 이후, 법적 구속력을 가진 문서가 되었으며, 유럽연합과

그 회원국들은 소수민족을 포함한 유럽연합 시민들과 유럽연합에 거주하거나 혹은 체류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기본권은 회원국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 의회 또한 그 어떤 민족과 국가 또한 독립 선언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 연합체로서 통합된 유럽연합이 결성 및 유지되면서 회원국 각각을 하나의 지역으로 보는 패러다임을 통해 민주주의의 유지와 확산, 그리고 발전에 그 목표를 두어 다양한 제도와 원칙, 현장 등을 통해 명문화하여 공동체적 실행을 촉구해왔다.

유럽 각 국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분리 독립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세계는 지금 어느 때보다 유럽연합을 필요로 하고 있다. 최근의 금융 위기와 브렉시트로 초래된 엄청난 충격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은 오늘날 직면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심각한 위협과 다양한 형태의 고립주의, 보호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극단주의에 대항하는 세계 최선의 방어망으로서 충분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 속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EU 우선주의’라는 슬로건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하는 ‘미국 우선주의’와 달리 유럽연합의 경우,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협소한 국가이익 차원을 넘어 개방과 다자주의를 수호하고,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 배타적 정치권력에 정면으로 맞서게끔 해준다.¹⁰⁾ 회원국들이 유럽연합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도전을 극복하고, 또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유럽을 위해서 유럽연합은 브렉시트를 계기로 촉발되어진 회원국들의 분리 독립 움직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일 먼저, 카탈루냐 주 의회의 주민투표 실시법 통과와 관련하여 유럽의회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모든 행위는 유럽연합법의 틀에 반하는 행위’라며 카탈루냐 주 의회의 결정을 비판하였고, 유럽연합 집행위가 ‘만일 유럽연합 회원국 영토의 일부가 분리되어 새로운 독립국이 탄생하는 경우, 유럽연합 조약은 해당 독립국에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키며, 카탈루냐가 독립하는 경우 역시,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자동 상실하게 됨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와 더불어,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카탈루냐 주민투표 실시령 효력정지 판결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유럽의 주요국 정부들과 주류 정당들은 실제 카탈루냐가 스페인에서 독립하면 민족 우선주의와 그에 따른 국경통제, 문화적 배타주의 등 역사상 유럽대륙에서 주요 전쟁들의

10) 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8/2018011800588.html (검색일: 2018. 01. 10.).

원인이 된 폐쇄적 민족주의가 발흥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유럽문제 에디터이자 칼럼니스트인 토니 바버는 "유로존 금융위기가 수십 년에 걸친 유럽연합의 통합 노력을 거의 해체할 뻔 한 마당에 카탈루냐 민족주의자들의 독립 추진은 유럽에서 민족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¹⁾

이렇듯이 현재 유럽에서는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부쩍 심각해진 난민과 이민자 문제, 테러리즘, 우파 포퓰리즘, 동유럽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역행 등의 '골칫거리'에 민족주의의 물결까지 더해진다면 '통합을 통한 유럽대륙의 평화 증진'이라는 유럽연합의 대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유럽의 국경선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그려진 지 이제 60여년이 흐른 지금, 유럽연합의 출범과 겐 조약의 발효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 높게 쌓아올려졌던 담은 낮아졌다. 이것은 60여 년 동안 지구촌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시켜 왔고, 우리에게도 다자주의와 함께 이런 질서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도 하였다(문돈 2007). 우리가 지금 직면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없는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전략적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이런 질서는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김면희 2004).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카탈루냐가 실제로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할 경우,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봇물 터지듯 분출해 유럽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연합 내부와 유럽연합 중심국들에서는 카탈루냐의 독립 움직임에 강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속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역사적, 경제적 이유로 독립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 주요국 내 '민족주의' 움직임은 유럽연합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V. 결론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도래와 함께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던 '민족'이 다시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어지고 있다. 2017년, 카탈루냐 자치지역 의회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카탈루냐 사태를 계기로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분출해 유럽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드는 상황은 카탈루냐 분리 독립 갈등과 관련해

11) 출처: <https://goo.gl/HnbTep> (검색일: 2018. 01. 10.).

민족주의가 유럽의 통합을 저해하고 유럽을 약화시키며 갈등을 조장하는 형태의 분리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이, 세계화 시대라고 여겨졌던 현재의 21세기에 민족주의가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소련이 붕괴되고 이념 전쟁이 끝나고 세계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 달리 경제위기와 함께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민족주의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모습이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는 2016년,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브렉시트가 결정되어짐에 따라 급격히 가속화되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로써, 영국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분리 독립의 움직임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도 영향을 미치며, 유럽 곳곳에서의 분리독립 움직임으로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중 지역에 따라 경제적 상황이 다른 이유 때문에 서로 갈등이 발생되어지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거주하는 주민들이 인종적으로 다른 이유 때문에 해묵은 역사적 감정까지 분출되고 있다.

민족주의를 넘어 ‘하나의 유럽’으로 태어나려는 노력을 기울여 온 유럽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유럽국가 간의 통합을 가치로 내걸고 긍정적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듯 보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에서는 민족주의 감정이 경제에 투영돼 분쟁을 빚고 있는 것이다.

벨기에 북부의 플랑드르 지방은 남부 발론 지역과의 분리 독립을 추진 중이고, 스페인에서는 북동부 카탈루냐 지방에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부여하였다. 이탈리아도 북부지방을 대표하는 북부동맹이 남부지방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연방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들 분리 독립, 지역들은 모두 언어와 역사, 문화가 다르고 부유하게 사는 곳으로서 오랫동안 자치와 분리를 주장해왔다. 유럽은 유럽연합을 통해 정치, 경제적으로 급속히 하나로 통합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고유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분리독립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에는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경제민족주의 성향이 한층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점은 유럽연합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럽집행이사회는 로마 조약의 권한은 조약에 서명한 회원 국가만 지닌다고 명시된 내용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들 중 분리 독립하게 되어도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존의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분리된 새로운 독립 국가는 새로운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하며 유럽연합 회원권이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 국가가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유럽연합 의회는 유럽연합에 있는 그 어떤 민족과 국가 또한 독립 선언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헌법과 자치현장에 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렇듯이 현재 유럽에서는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부쩍 심각해진 난민과 이민자 문제, 테러리즘, 우파 포퓰리즘, 동유럽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서 나타나는 민주주의 역행 등의 ‘골칫거리’에 민족주의의 물결까지 더해진다면 ‘통합을 통한 유럽대륙의 평화 증진’이라는 유럽연합의 대의가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

유럽연합의 출범과 쉰 조약의 발효로 60여 년 동안 지구촌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시켜 왔고, 유럽연합은 다자주의와 함께 이런 질서가 필요함을 인식시키기도 하였다. 우리가 직면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는 대응할 수 없는 경제와 환경, 그리고 전략적 도전에 맞설 수 있게 하는 이런 질서는 다자주의를 토대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카탈루냐가 실제로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할 경우, 유럽대륙 각지에서 억눌려왔거나 잠재된 민족주의가 봇물 터지듯 분출해 유럽의 정치적 안정을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역사적, 경제적 이유로 독립하고자 하는 유럽연합(EU) 주요국 내 ‘민족주의’ 움직임은 유럽연합 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 권가람. 2015. ‘카탈루냐 자유 만세!’ - 카탈루냐의 독립을 향한 정치적 움직임과 그 전망. 트랜스라틴 32, 41-54.
- 김면희. 2004. 유럽연합(EU)의 장래와 우리의 대응전략. 외교통상부.
- 김정현. 2013. 민족주의, 애국심, 세계시민주의-테일러(C. Taylor)의 견해를 중심으로. 철학논총 73(3), 57-88.
- 김형균 · 박정태. 2006. 동북아 “다문화”시대 한국사회의 변화와 통합. 한국사회학회.
- 문돈. 2007. 국제무역질서의 변화와 한국: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그리고 한국. 한국정치연구 16(2), 165-190.
- 박동준. 2010. 유럽연합의 문화통합과 문화적 예외 그리고 문화다양성. 유럽사회문화 5, 59-99.
- 변지영. 2016. EU사법재판소(CJEU)와 유럽인권재판소(ECtHR)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 연구원.
- 유임수. 2006. 확대 유럽연합의 현황과 과제 . 유라시아연구 2(1), 57-86.
- 윤덕희. 2008. 동유럽의 체제전환-유럽통합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전략 14(1), 185-212.
- 이상봉. 2011. ‘민족 없는 민족주의’와 ‘민족주의 없는 민족’에 대한 재고. 책세상.
- 이재승. 2015. 지역협력의 조건: 초기 유럽통합의 재고찰과 동북아시아에의 함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희원. 2014. 한국의 다문화주의와 단일민족주의. 분쟁해결연구 12(2), 05-30.
- 진인혜. 2010. “다양성 속의 하나”를 지향하는 EU의 문화정책과 시민단체. 유럽사회문화 5, 101-125.
- Calduch, R. 1991. El Estado, el Pueblo y la Nación. Relaciones Internacionales,- Edit. Ediciones Ciencias Sociales, Madrid.
- Hobsbawm, E. 1991. CRÍTICA GRIJALBO MONDADORÍ BARCELONA.
- Gellner, Ernest. 2001. Naciones y nacionalismo. Alianza Universidad.
- Thumfart, Alexander. 안미현 · 최경인 · 안미라 역. 2007. 동 · 서독의 정치통합. 통일 연구원.

● 투고일: 2018.02.01. ● 심사일: 2018.02.07. ● 게재확정일: 2018.02.13.

| Abstract |

Individual Nationalism of EU Member States and Conflict of EU Community Policy

Hwang Kisik (Dong-A University)

Choi Inyoung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Over the past 75 years, many Western nations moved steadily toward cooperation and interconnectedness, as their shared economic and political interests converged during this period called globalization. But the political winds are shifting, and there are signs of a new age of populism and nationalism emerging in Europe, a development that eventually could undermine post-war security and unity. Nationalisms are rising again around Europe. This new wave of nationalism scares the old establishment and make the old fears vivid again. This autonomous community of Spain is pressing to become independent. All of these separate and independent regions have long claimed autonomy and separation as places where people live in different languages, histories, and cultures. This new wave of latent nationalism, which the European Union tried to absorb, as happened in the past. It is clear that the Catalan crisis is not just related to Spain, but involves also the EU relations with Spain.

〈Key words〉 European Union, Nationalism, Brexit, Catalonia, Separation-Independence